

강원도 지역사회 가정간호 시범사업 평가

이성은(관동대학교 간호학과)

김성실(춘천시 가정간호시범센터 운영위원장)

김춘길(한림대학교 간호학부)

안양희(연세대 원주 간호학부)

양순옥(한림대학교 간호학부)

박경수(춘천시 가정간호시범센터 가정간호사)

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대한간호협회 강원도 간호사회는 춘천시의 위탁을 받아 1996년부터 지역사회 가정간호 시범센터를 운영하였다. 2000년에 일차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2년에 이차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주로 실적 중심으로 평가이었다. 본 연구는 춘천시 지역사회 가정간호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장기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총체적 평가를 하여 시범사업의 확산 및 발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.

연구방법

본 가정간호 사업평가의 표준 및 기준은 미국의 가정간호사업소 인정기구(CHAP)의 가정간호조직 표준을 이용하였다. 표준은 크게 가정간호사업소의 구조와 기능 및 질, 자원, 장기발전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 영역은 공통 외 여덟 영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영역 중 공통부분만 평가가 활용하였다. 평가 대상 및 기간은 2003년을 중심으로 하고 2003년을 대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03년 이전 평가 자료를 이용하였다.

연구결과

조직 구조 및 기능 : 조직 구조와 기능은 조직의 목적과 조직 및 행정, 조직 목적의 지지체계로 평가하였다. 시범사업으로 갖는 사업의 미래 계획에 불확실성이 문제로 나타났다.

가정간호서비스의 질 : 가정간호서비스의 질은 철학적 적합성과 접근성, 협동체계, 정책 및 실무지침, 대상자 기록관리, 질보장, 감염관리 및 안전 등 일곱 하부표준으로 평가하였다. 가장 취약한 영역이 질보장 영역이었다.

자원 : 자원은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재정 및 물리적 환경으로 평가하였다. 비영리조직이 갖는 재정적 취약성으로 자원이 취약성이 문제이었다.

사업의 장기 지속 가능성 : 장기 지속 가능성은 계획, 평가, 재정위험관리, 홍보, 책임, 지식확장 등 여섯 하부표준으로 측정하였다. 자금 확보, 포괄적 평가의 부재, 전산화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.

결론 및 제언

지역사회 가정간호 시범사업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적인 건강관리사업이므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관리사업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를 도 차원으로 확장하여야 하겠다.